

독도 연안의 봄철 어류상

명 정 구

한국해양연구소 자원개발연구본부

서론

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2km떨어진 곳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. 이 섬의 위도는 북위 37° 14', 동경 131° 52"이며 총 89개의 부속도와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독도 수중 생태 조사의 일환으로 독도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어류상을 파악하고자 1999년 5월 12 - 15일 사이에 수중 다이빙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조사에 의해 확인된 어류 목록의 작성과 수중 생태에 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재료 및 방법

본 조사는 1999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주변에 5개의 정점을 선정하고 각 정점 당 1-4회의 잠수를 통하여 어류 조사를 실시하였다.

잠수시 수중에서 종의 특징 및 서식 생태를 관찰 노트하고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으며, 종의 확인이 필요한 종은 수중 슬라이드 사진을 채집하여 도감과 대조하는 형식을 택하였다. 잠수시 소형 채포망으로 채집한 종은 현장에서 사진 촬영 후 10%의 포르말린으로 고정시켜 실험실로 운반하여 종 동정 및 형태적 특징을 조사하였다.

어류의 분류 체계는 한국동물명집(동물분류학회, 1997)를 기준으로 하였다.

결과 및 요약

조사 당시 독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15-16 °C 범위였으며 조사된 어종은 총 15과 30종으로 97년 10월 가을철에 확인되었던 25과 58종에 비하면 약 43%에 불과하였다.

가을철 독도 수중의 어류상은 동해안 수중보다는 제주도 남부의 수중 생태(한국해양연구소, 1995)와 닮아 있고 한류성 어류와 난류성, 아열대성 어류를 포함하는 독

특한 어류상을 나타내었는데(독도연구보전협회, 1998), 본 조사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아열대성 어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자리돔, 망상어, 인상어와 같이 남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안 어종이 대형 군락을 이루고 있음이 관찰되어 봄철의 어류상은 97년 10월 조사 당시(수온 18℃ 전후)와 수온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철 어류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가장 다양한 어종이 관찰된 지점은 물개바위 주변(정점 3)으로 총 18종이 관찰되었는데 긴꼬리뱅에돔, 주홍감펍, 들돔, 방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동도와 서도사이의 수심이 얕고 모자반이 잘 발달된 연안 지형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뱅에돔 유어, 불락류의 치어 등 어린 새끼들이 많이 발견되어 이곳이 독도에서는 어린 치어의 성육장 역할을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.

참고문헌

- 독도연구보전협회, 1998. 독도인근 해역의 환경과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기초 연구. 독도연구보전협회, 서울, 254pp.
동물분류학회, 1997. 한국동물명집. 아카데미서적, 서울, 489pp.
한국해양연구소, 1995. 제주도 남부해역의 생물상 연구. BSPE 00454-794-서울, 155pp.